

## 후지산의 삼림

후지산 북쪽에는 벌목 등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의 숲,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의 역사는 겨우 1,000 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부는 아직도 후지산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원시림이라 불리는 옛 삼림이 대체된 것입니다.

## 조용한 바다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은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에 의해 용암류로 형성된 30 km<sup>2</sup>의 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분화가 이 지역 전체의 지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수로를 막은 용암류는 세노우미라 불리는 광활한 호수를 현재 사이코 호수와 쇼지코 호수가 된 부분만을 남기고 가득 메웠습니다. 이 구역을 위에서 보면 원래의 환경으로 용암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카이(樹海:나무의 바다)’라는 이름은 이 삼림의 규모뿐 아니라 매우 평탄한 지형에서도 유래했습니다.

암반이 형성된 지 1,000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숲은 토양층이 얇고 양분도 부족합니다. 다공질의 아오키가하라 화성암에서는 노출된 뿌리가 이끼가 낀 지면에 얹혀 성장하는 강한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 대부분은 좁술송나무, 낙엽송, 노송나무 등의 상록 침엽수입니다.

용암층이 물결치거나 파열된 흔적은 이곳에 별세계와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가져다 주었고 소리를 감쇄시키는 경향이 있는 화성암은 주카이 숲 안을 놀랍도록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자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은 용암은 어느 정도 자기적인 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방위자석을 직접 지면에 두지 않는 한 그 자력이 방위자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숲은 매우 거대하고 뚜렷한 표식도 없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원시림 - 과거의 기억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는 마그마가 산 정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 산 측면에서 분출된 측분화였습니다. 후지산 북쪽 기슭에는 분화 장소보다 높은 곳에 있었거나 단애 또는 바위의 노두가 용암의 흐름을 차단한 덕에 소실을 면한 고대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삼림이 남아있는데, 이를 원시림이라고 부릅니다.

분화 후에 생긴 새로운 숲과 소실을 면한 원시림 사이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오래된 숲은 토양이 별로 없는 화성암 투성이의 장소와 달리 두께 수 cm를 넘는 토양이 발 밑에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라는 수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숲과 비교하면 원시림에서는 호몰레피스 전나무 등의 상록수가 곳곳에 산재하는 와중에도 너도밤나무나 물참나무 등의 낙엽수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윗부분의 한랭한 장소에 있는 원시림에는 솔송나무나 베이트키 전나무 등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원시림 구역의 대부분은 등산로인 원래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숲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헤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너도밤나무 숲은 모토스 바람 동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무로야마 산 북쪽 경사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